

이호해수욕장 비양심 텐트 알박기 ‘몸살’

설치 금지 현수막 있어도 곳곳에 텐트 복적복적 영역 줄이려 심은 나무에 줄 연결해 고정하기도 행정 “나무 더 심고 야영지 이전 추진도 협의 중”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 이호해수욕장이 피서철을 맞아 텐트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알박기 등 텐트를 세우는 비양심 야영객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부근에는 이호 주차장에서부터 많은 텐트들이 들어서 야영지 영역을 꽉 채우고 있었다.

이곳엔 ‘취사행위 및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바로 앞에 현수막을 가로막는 텐트들이 여럿 설치돼 있어 취사를 무

색케 했다. 야영지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끔 나무가 심어져 있었지만, 텐트족들은 오히려 나무를 줄로 감아 텐트를 고정시키는 등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부분 텐트는 문이 닫혀 있었고, 텐트 안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백사장과 주차장 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자리엔 오래 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알박기로 의심되는 텐트들이 돌과 물이 채워진 페트병들로 고정돼 있기도 했다.

이처럼 이호해수욕장의 비양심 텐트 문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호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이호해수욕장 내 텐트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설치돼 있는 텐트들. 사진=강민성기자

최근엔 사유지까지 무분별하게 텐트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센터는 나무를 심어 텐트의 야영지의 영역을 줄이고 있지만 비양심 텐트는 오히려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현

제 나무 심기 및 현장을 찾아 야영객들을 계도하는 등의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제가 쉽지 않다”며 “사유지 측과 협의해 나무를 더 심어 알박기 등 불법 야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야영장을 옮길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경찰·의무경찰 코로나 잇단 확진 ‘비상’

정기외박 다녀온 의경 확진 백신 1차 접종 경찰도 확진 24일까지 의경 휴가·외박 금지

제주에서 경찰과 의무경찰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0시4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대원 A씨가 제주도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정기외박을 다녀온 뒤 자체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제주도에 입도한 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를 통해 받은 코로나 진단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격리 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의료기관에 인계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지역 의경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박 중 제주도에 머물렀던 B씨는 타지에 다녀온

동료 대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경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자 제주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경의 휴가와 외박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사회필수요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 50대 A씨

가 함께 지난달 말 사회필수요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 50대 A씨가 함께 지난달 말 사회필수요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 50대 A씨가

이로써 제주지역 현직 경찰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동부경찰서에서도 소속 경찰관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직원간 음주 금지)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조사 참석이 금지되고, 가족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를 권고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어린이집 원아 집단 장염증세

서귀포시 동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30분쯤 서홍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12명이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보건당국은 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4일까지 3일간 휴원을 권고하고 장염증세를 보인 원아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의뢰했다. 검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법원으로 간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한림수협·어선주협회 13일 제주지법에 소송 제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제주 어업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일본국, 도쿄전력출당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요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

련된 준비행위를 중지해 달라라는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출,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는 취지다. 또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하루 위판수수료(2000만원)가 50% 떨어질 것으로 산정, 하루 1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이

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지 여부다.

이번 소송을 수행하는 문중철 변호사는 “주권적 행위인 경우라도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갈 것”이라며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를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위해·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방역수칙 위반 하루 11건 꼴로 적발

중대 위반 4건 행정처분 조치

제주지역에서 이달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원인으로 일상 속 방역수칙 위반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행정 점검 결과 3일 만에 3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엔 총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8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드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다해기자

우도 클린하우스서 화재

제주시 우도면의 한 클린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해 6여분만에 진화됐다.

13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해 6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클린하우스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스쿠터·전기오토바이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층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전기수도배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5월가정의달스타키보청기구매고객
약20만원 상당 녹음선착순 무료 증정

wellnok
NEW 뉴녹음백세고 스틱 보청기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알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세관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환**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